

오늘의 차트(Chart)

2021/6/18

물가 리스크 부각에도 미 기대 인플레이션율 하락 중

그림1. 하락 중인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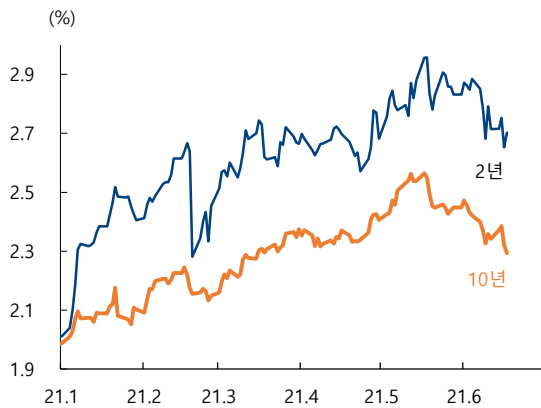


그림2. 미국 투자등급 회사채의 스프레드, 2008 년 이후 최저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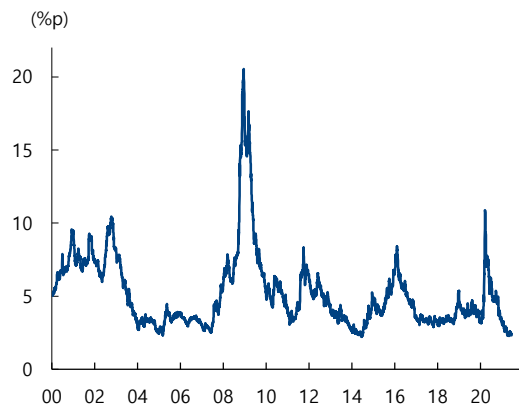


그림3. 미국 주요 대도시의 사무직 직원의 직장 복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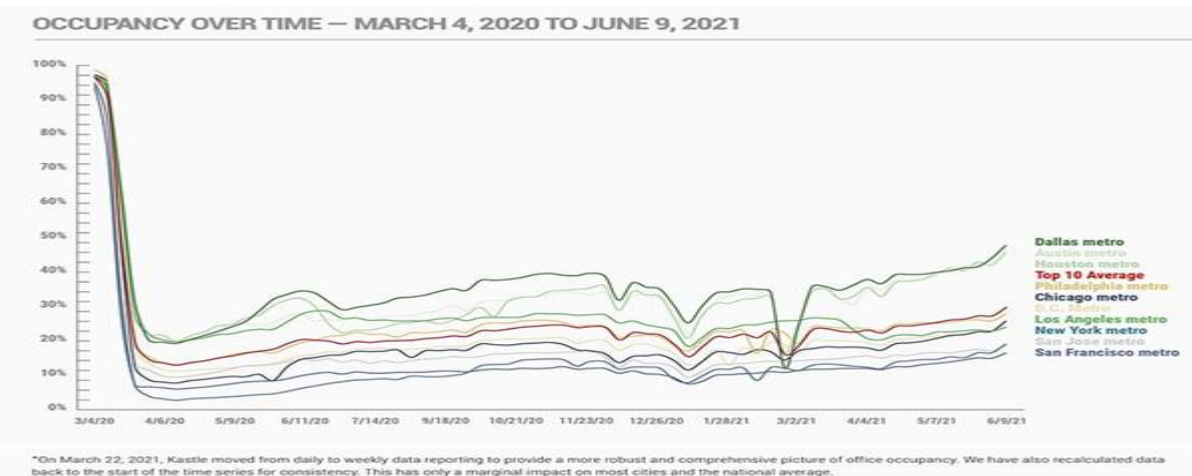


그림4. 신규 주간실업청구건수 10 주만에 상승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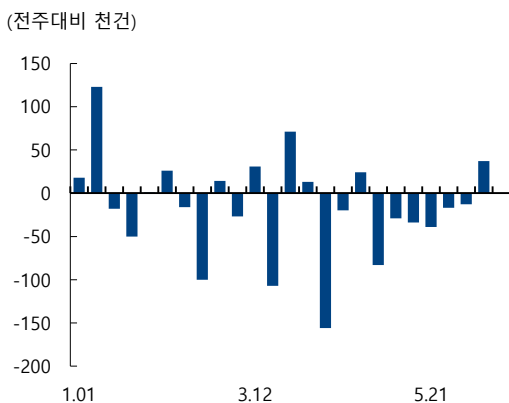


그림5.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시그널로 2년 국채금리 상승세 지속



자료: Bloomberg, CEIC, Kastle Systems,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미 연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시사했지만 다행히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하락 중

- ✓ 6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시그널이 가시화되고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재차 부각되었지만 다행히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5월초를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는 중임. 물가압력이 5월을 정점으로 둔화될지는 지표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지만 확산되던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다소 누그러진 것은 분명함
- ✓ 만약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처럼 향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조기 금리 인상 시그널 혹은 3분기말이나 4분기초로 예상되는 테이퍼링 시그널로 인한 시장 충격이 크지 않을 수 있음
- ✓ 더욱이 미 연준의 긴축기조의 전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신용스프레드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도 긴축 전환의 충격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음. <그림2>에서 보듯 미국 투자등급 회사채의 스프레드, 즉 미국 하이일드 회사채 금리와 미국 10년 국채 금리간 스프레드가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 6월 FOMC회의를 계기로 동 스프레드 추이가 다소 변화, 즉 상승 전환할 여지는 있지만 스프레드 수준 자체가 매우 낮다는 점에서 미 연준의 긴축기조 전환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함. 즉,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증폭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시사함

■ 예상보다 더딘 일상으로의 복구 추이는 미 연준의 긴축 행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임

- ✓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미국 경제 재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는 것도 사실임. 일단 미국 백신 접종율이 최근 들어 급격히 둔화되고 있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집단면역 달성 시기가 늦어질 공산이 커지고 있으며 사무직 근로자들의 직장 복귀 역시 기대만큼 빠른 추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 이는 미국 경기 정상화에 잠재적 리스크인 동시에 미 연준의 정책 행보에도 영향을 줄 공산이 높음. 즉, 미 연준이 긴축기조로 전환이 시작된 것은 분명하지만 시장의 우려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긴축 강도를 높일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평가할 수 있음
- ✓ 경기의 완전 정상화는 물론 통화정책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길고 구불구불한 길일 것임

Compliance notice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박상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